코로나19 누적 사망자 3만명 넘었다

세계 35번째…2만명 넘은 뒤 7개월여만 광주·전남 1500명 육박
방역당국, 7차 유행에 백신접종률도 낮아 위중증·사망 증가 우려

국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3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4월 2만 명을 넘어선 뒤 7개월여 만이다. 광주·전남도 1500명에 육박하는 시·도민이 코로나19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7차 유행이 본격화하면서 감염 취약계층인 고령자가 많은 광주·전남지역 방역 당국은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줄이는 데 의료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유행 2년 10개월 만에 3만 명 사망**=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까지 국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3만31명을 기록하며 3만 명을 넘어섰다. 사망자 수가 3만 명에 도달한 것은 오미크론 유행기인 지난 4월 13일 2만 명이 된 지 7개월여만이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가 처음 발생한 것은 첫 환자 발생(2020년 1월 20일) 한 달 뒤인 2020년 2월 20일이었다.

이후 누적 사망자가 5000 명(2021년 12월 23일)이 되기까지 2년 가까이 걸렸지만, 이후 1만 명(지난 3월12일)이 되기까지는 석 달이 채 안 걸렸다. 지난 겨울 재유행이 오미크론 유행으로 이어지면서 다시 2만 명(4월 13일)이 되는 데에는 다시 한 달 밖에 걸리지 않았다.

광주·전남은 타 지역에 비해 사망자수가 많지는 않지만, 현재까지 광주 725명, 전남 762명 등 1487명이 사망했다.

◇**세계에서 35번째로 많은 누적 사망자수**=국제통계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누적 사망자 수가 35번째로 많은 국가다. 미국이 107만 5951명으로 가장 많았고, 브라질(68만8764명), 인도(53만546명), 러시아(38만 3320명), 멕시코(33만444명) 등이 뒤를 이었다. 파키스탄, 태국, 벨기에는 3만 명대 초반, 방글라데시, 튀니지는 2만 명대 후반으로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누적 확진자 수가 세계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많은 편인데 비해 사망자 수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의 누적 확진자 수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 조금 넘는 2641만 2901명에 이른다.

인구당 사망자 수로 보면 세계 평균보다 낮은 중간 수준이다. 100만 명당 사망자 수는 한국이 577.53명으로, 세계 평균 829.77명보다 낮았다. 대만(577.19명), 인도네시아(578.19명)와 비슷한 수준으로, 일본(387.04명)보다는 많지만 미국(3182.16명), 영국(3130.64명), 이탈리아(3048.66명), 프랑스(2332.27명) 등 다른 주요국보다는 훨씬 적다.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은 현재 0.11% 수준으로, 독감 치명률보다는 여전히 높지만 2%가 넘었던 코로나19 초창기 치명률과 비교하면 크게 낮아졌다.

◇**7차 유행에 사망자 수 60명대로 다시 증가세**=사망자 수는 지난 여름 유행이 끝난 뒤 한때 한 자릿수(10월 8일·6명)까지 떨어졌지만,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해 하루 40~60명대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17일에는 67명까지 올라가면서 53일 만에 최다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달 20일~지난 19일까지 1달간 사망자는 1092명이나 된다.

사망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재원 중 위중증 환자 수도 지난 4일 이후 300명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있다. 20일 발표된 위중증 환자 수는 451명으로, 9월 21일(494명) 이후 2달 사이 가장 많았다

사실상 방역의 유일한 '무기'인 백신 접종률도 좀처럼 오르지 않으면서, 위중증과 사망자 수 증가 등이 우려된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제10대 천주교광주대교구장 옥현진 주교

프란치스코 교황 임명… 대주교 승품도

제10대 천주교광주대교구장에 옥현진(54·사진) 시몬 주교가 임명됐다.

주한 교황대사관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천주교 광주대교구 보좌주교인 옥현진 시몬 주교를 광주대교구장에 임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옥 주교는 광주교구장에 임명됨과 동시에 대주교로 승품됐다.

이번 옥 신임 대교구장 임명은 김희중 대주교의 교회법에 따른 사임 청원과 맞물려 이루어졌다. 김 대주교의 사임 청원은 교구장 주교의 경우 만 75세가 되면 교황에게 사의를 표명하도록 권고한 교회법 제 401조 1항에 따른 것이다.

이번 옥 대주교 임명으로 광주대교구는 모두 4명의 대주교를 두게 됐다. 제7대 윤공희, 제8대 최창무, 제9대 김희중 대주교에 이은 4번째다. 광주대교구장은 광주관구장이 되며 광주관구에는 광주를 비롯해 전주, 제주 교구가 속해 있다.

광주대교구장 임명과 동시에 대구교로 승품된 옥 대주교는 무안 출신으로 1968년 태어나 1994년 사제품을 받았다. 이후 농성동과 북동본당 보좌신부로 사목했으며 1996년부터 교황청립 그레고리오 대학교에서 교회사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4년 귀국 후에는 운남동본당 주임신부를 거쳐 광주대교구 교회사연구소장, 광주가톨릭대학교 교수를 지냈다. 2011년 5월 광주대교구 보좌주교이자 페데로디아나 명의주교로 임명됐고, 같은 해 7월 주교품을 받았다.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교회의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주교회의 사회홍보위원회 위원장, 주교회의 순교자현양과 성지순례사목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편 지난 12년 동안 광주대교구장으로 봉직한 김희중 대주교는 주교회의 상임위원을 거쳐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이사장을 지냈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간 대화 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웃종교와 활발한 소통과 교류를 해왔다.

특히 아시아주교회의연합회에서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 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FABC동아시아지역 대표로도 활동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꿀벌 집단실종 원인은 극심한 기온변화 때문

한국양봉학회 학술지 논문

지난 겨울 영암군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꿀벌 집단실종·폐사 원인 가운데 하나가 가을 극심한 기온변화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변화로 날씨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이런 일이 언제든 반복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겨울 꿀벌 피해는 극복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올겨울에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농촌진흥청, 전문가,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우려했다.

20일 한국양봉학회 학술지 최신호에 실린 '꿀벌의 월동 폐사와 실종에 대한 기온 변동성 영향' 논문을 보면 지난겨울 발생한 꿀벌 집단폐사와 대량실종에 영향을 준 기상현상은 '10월 급격한 기온변화', '11~12월 이상고온 현상', '올해 1~2월 이상고온과 한파'로 분석된다.

지난겨울 월동 중인 꿀벌들이 대거 사라지고 폐사하는 일이 벌어졌다. 농식품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지난겨울 폐사한 꿀벌은 39만 봉군(蜂群·벌떼) 78억마리이다. 이는 국내에서 사육되는 꿀벌의 약 16%에 달한다.

논문은 피해가 가장 크게 발생한 지역 중 하나인 영암군의 날씨를 분석해 꿀벌이 폐사한 원인을 추적했다. 영암군은 작년 10월초 이상고온에 이어 10월 중순에는 이상저온이 발생해 꿀벌 생태와 생리에 큰 타격을 줬을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

봉쇄된 베이징 왕징 아파트 입구

20일 오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중국 베이징의 한국인 밀집 지역인 왕징의 아파트 입구가 봉쇄돼 있다. /연합뉴스

국내 등록 친환경차 150만대 돌파

하이브리드 112만여대 가장 많아…전기차 작년보다 72.7%↑

국내 친환경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누적 등록 대수가 150만대를 돌파했다.

20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통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친환경차는 작년 10월(109만5000대)보다 38.3% 증가한 151만5000대를 기록했다. 9월 말 친환경차 등록 대수는 147만8000대였다.

150만대 돌파는 2021년 7월 100만대를 돌파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친환경차는 2019년 4월 누적 등록 50만대를 넘었고 2년 3개월 후 100만대를 돌파했다.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 2540만2000대 중 친환경차의 비중은 5.96%까지 올랐다. 2014년 말 0.70%에 불과하던 친환경차 비중은 2020년 3.37%, 2021년 4.65%로 꾸준히 상승했다.

친환경차 151만5000대 중 하이브리드차가 112만1000대로 가장 많았다. 전기차는 36만5000대, 수소차는 2만7000대를 차지했다. 하이브리드차는 전년 동월 대비 29.6%, 전기차는 72.7%, 수소차는 54.3%가 증가했다.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하이브리드차는 4.42%, 전기차는 1.44%, 수소차는 0.11%다.

2020년 말 13만4000대가 누적 등록된 전기차는 2021년 23만1000대로 급증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정부가 목표로 한 2025년 친환경차 283만대 보급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싼, 임야, 삽니다
맹지사절. 010-9582-7400

특수경매, 대출
부동산 사고팔고
컨설팅
(주)오천. 010-3605-5000

꼭! 받아야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사망으로 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발생암매각공고

1. 입찰건명 : 발생토석 매각
호남고속철도2단계 1공구에서 발생된 토석 309,463㎥(자연상태기준)상당.
단, 현장 사정에 따라 전체 수량이 변경(증,감) 될 수 있음.

구 분	단위	토사	풍화암	연·경암	합계	비고
수 량	㎥	-	-	309,463	309,463	

2. 현장설명회, 입찰등록 및 입찰일시 (장소 : 호남고속철도2단계 1공구 현장사무실)
가. 현 장 설 명 회 : 2022년 11월 29일 14시
나. 입찰등록마감일 : 2022년 12월 06일 14시
다. 개 찰 일 시 : 2022년 12월 06일 14시
라. 낙 찰 자 선 정 : 2022년 12월 09일
(각 입찰자의 경제성 평가 산정을 위해 개찰 3일 후 낙찰자 발표)

3. 입찰방법 : 일괄 매각 입찰
가. 낙찰자결정 : 1㎥당 원석대가 최고가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최고가 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운반거리가 가장 가까운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계약대리인의 운반거리 산정 방법에 의함)
나. 입찰 참가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을 시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4. 계약착수 및 완료일
계약일로부터 ~ 2026년 06월 22일

5. 입찰 참가 자격
가. 암매각의 경우
1) 현장설명일 현재 "골재채취법"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골재 선별 및 파쇄업을 등록한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어야하며,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어야 함.
2) 사업장 관련 인허가 서류를 현장설명 시 제출하여야 한다.
(야적장 또는 골재 생산시설 위치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발생암처리가 가능한 충분한 부지가 확보되어야함)
나. 공통사항
1) 현장설명일 기준으로 세금이 체납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 현장설명 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입찰참가 시 제출한 반입장(야적장 또는 골재 생산시설)은 발파암 반입, 골재생산 등을 진행함에 있어 각종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야함

6. 입찰업체 제출서류 (입찰관련 서류는 현장설명회 참석시 제출)
가. 골재생산시설 또는 사토장 위치가 명확히 표시된 위치도 1부
나. 골재 선별·파쇄업 사업자 등록증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라. 시국세 완납증명서 1부
마.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및 재직증명서 1부
바. 골재파쇄 신고 수리증 1부

7.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현장설명서, 계약조건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등록을 마친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함.
나. 기타 상세한 사항 문의처
• 매 각 자 :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
• 계약대리인 : ㈜포스코건설
•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영산로 4533-7
• 기 타 문 의 : 시공사 ㈜포스코건설 061-336-9002 담당자 김홍국 팀장
건설사업관리단 ㈜서현기술단 070-4124-4598 담당자 김경우 상무
*우편접수 불가

2022년 11월 21일
호남고속철도2단계(고막원~목포) 제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계 약 대 리 인

광산구 수전해 발전사업 주민의견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 및 동일법 시행령 제4조의2규정에 따라"광산구 하남산단3번길14-26(장덕동) 수전해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해당 기간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발전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1) 광산구 하남산단 수전해발전사업
• 위치 / 면적
1)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로3번길14-26 (장덕동)
2) 약100평

2. 발전사업 주요내용
• 설비용량 : 900kw
• 상업운전예정일 – 2024년12월
• 운영기간 – 상업운전일로부터20년간

3. 허가신청자: 세광에너지(주)

4. 열람/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 열람/의견제출기간 : 2022년11월14일(월)~25일(금)
• 제출방법 : 열람처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작성
• 열람처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3번길14-26
• 기타문의사항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3번길14-26
② 연락처 : 010-7362-6689
③ 이메일 : kkh6868@daum.net

2022년 11월 21일
세광수소에너지 (주)
대표 김 남 천

자본감소로 인한 주권제출공고

본 회사는 2022년 11월 18일 개최한 주주전원의 서면결의로 자본의 총액 금 900,000,000원을 금 200,000,000원으로 감소하기로 하고 그 방법으로서 1주의 금액 금 10,000원의 주식 1주에 대하여 0.7777777주의 비율로 하여 주주에게 환급할 것을 결의하였으므로 구 주권을 가진 사람은 이 공고의 게재일로부터 1월 내에 구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함.

2022년 11월 21일
주식회사 창원
전남 담양군 대전면 대치2길 72
대표이사 문 국 란

분묘 개장 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 제19조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담양군 월산면 오성리 산15-4, 산13
2. 분묘기수 : 무연분묘2기
3.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전/토지의 효율적 이용
4. 개장방법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률에 의거 공고자 임의개장하여 봉안시설에 안치함.
5. 개장장소 : 전남 담양군 월산면 광암리512(천주교공원묘원)
6. 안치기간 : 5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부터 3개월 이상
8. 공 고 인 : 광주구천주교공원묘원 광주지역묘지운영위원회
9. 신 고 처 : 천주교공원묘원 광주지역묘지운영위원회 (062-227-7124)
10.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공고인 : 광주구천주교공원묘원 광주지역묘지운영위원회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